



“세계 최고의 한약정보DB를 구축하겠다.”

張日武 /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 소장

“가장 우리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전통한방과 의약을 현대의 학적으로 해석해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국산정보의 세계화를 열어나가는 곳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가 「TradiMed」라고 명명된 「천연약물정보망」 구축사업을 시작한 것은 작년 9월부터.

이 약물정보DB는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타난 4백50개 증상에 따른 1천3백80여종의 생약과 4천20종의 복합처방을 현대의학적으로 해석하여 처방·약효·생약명·학명 등으로 나눈 「문헌정보」와 생약의 천연물 성분에 관한 「화학구조식」, 처방에 나타난 약용식물의 「화상정보」 등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소의 張日武 소장(49)은 『우선 동의보감에 나온 6천여개의 처방에 대한 분석과 입력작업이 완료되면 이어 국내 전통한의서와 중국·일본·북한의 것을 구해 입력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히고 『내년중에 일단 텍스트형태의 문헌정보를 온라인 서비스하고 아울러 CD-ROM으로 개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張소장은 서울출신으로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휴스턴대학에서 생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후 75년에 서울대 생약연구소(現 천연물과학연구소)에 부임하여 오늘까지 줄곧 한의학과 생약연구에 몰두해오고 있다. [본문]

(사진/글:이석기)